

水原의 民俗

못골 虎神堂祭

조사 발굴 및 고증

김우영 (시인, 수원시사편찬위원)

박천우 (장안전문대학교 교양과 교수)

수원문화원

못골 호신당제(虎神堂祭)

조사 발굴 및 고증

김우영 (시인, 수원시사편찬위원, 경기사학회회원)

박천우 (장안전문대학교 교양과 교수)

1. 개요

못골 호신당은 한마디로 마을 제당이다.

마을 제당은 마을 사람들이 일정한 날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등을 기원하는 마을제를 지내는 제당으로서 각지역과 마을에 따라 산제당, 산신당, 성황당(서낭당), 도당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서 마을사람들이 지내오고 있는 마을제는 무속, 가정신앙들과 같이 한국 민간신앙의 한 핵심이며 대표적인 지연공동체의 신앙이다. 이러한 민간신앙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원초 이래로 민중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해 온 것이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마한의 천신제등은 자연발생해온 지연공동체 신앙의 역사에서 초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 제천의식들은 제정일치 사회에서는 종교요, 정치이며 종합예술이기도 했다는 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마을제의 유구한 역사의 원류라는 것도 지금은 한국민속학의 공통된 견해다.

마을제는 신성기간을 설정하고 화합단결을 다진다. 또 지금도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정치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와함께 농악대, 굿놀이, 가면극, 줄다리기 등을 곁들여서하는 축제 기능과 예술 전승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종교의례로는 혈연중심의 유교적인 조상제사가 있고 지연중심의 마을제가 양립하고 있었는데 마을제는 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대동단합의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¹⁾

그러나 일정기, 해방후 외래문화의 범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 제당들은 하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마을제로 인한 민족의 단합을 막기위한 일본의 탄압과 미신이라는 교육, 급속한 개발로 인한 제당의 파괴 등이 그 원인이었다.

못골 호신당은 80년대초 개발의 와중에서 사라졌다.

1)張壽根, 「한국의 마을 제당 - 제1권 서울 경기도편」 1995년, 국립민속박물관

2. 못골 호신당제의 유래 및 개요

①유래

못골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池洞)의 원 지명으로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지동으로 부르기도 보다는 못골이란 지명을 더 애용하고 있다.

못골은 정조대왕의 명으로 수원성(원명은 화성:華城)을 쌓을 때 성의 사방에 못을 하나씩 파도록 해 이곳에도 연못이 생겨났는데 못골이란 지명은 이때부터 생겼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오래전부터 커다란 연못이 존재했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조선말기에 발행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에는 축만제(祝萬堤), 만석거(萬石渠), 남제(南堤), 남지(南池), 북지(北池), 용연(龍淵), 곤신제(坤申堤), 만년제(萬年堤) 등 수원과 인근의 연못, 저수지등이 소개되고 있으나 못골 쪽의 저수지나 연못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는 지명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대한 조사는 추후로 미루고자 한다.

아무튼 못골은 수원시내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 아니면서도 최근까지 시내 다른 곳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곳이다.

이 마을이 개발의 물결을 타게 된 것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까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경수산업도로 개설 이후부터다.

그후 이곳은 일부 지역을 빼곤 몰라볼 정도로 많은 변모를 했다.

현재의 산업도로 변에 있던 못골 호신당도 이때 사라지게 됐다. 이곳의 위치는 산업도로의 창룡문(동문) 네거리와 동수원네거리 방향 담배고개의 중간지점 오탁한 곳으로 예전에는 얇으막한 산이었던 곳이다. 82년 3월경 호신당은 헐리고 이 자리엔 농협지점이 있는 건물이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호신당을 헐고 그 대지를 매각해 지난 85년 길 건너편에 있는 못골 새마을회관을 건립했다.

호신당은 산신당(山神堂), 또는 그냥 당집이라고도 불린다.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며 건립시기도 확실치 않다. 마을 고로들은 그저 1백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호신당은 처음 일반 마을 제당처럼 산신에게 마을의 평안과 액막음, 풍농 등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당집의 크기는 5~6평 가량으로 당초는 초가였다. 이곳에 큰 시루 2개와 제기를 놓아두고 제를 지낼때마다 사용했다고 한다.

제를 지내는 것은 3년에 한번씩으로 제를 지내기 전에는 지붕과 벽을 들렀던 짚이영을 뜯어내고 항상 새로 입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40여년전부터 주민 공동으로 짚이영 대신 벽체는 ब्ल럭벽돌, 지붕은 기와를 올려 반영구적인 당집을 건축하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 당집이 호신당으로 불리게 된 시기는 잘 알수 없다. 전기한 것처럼 지금도 산신당, 당집으로 함께 불려지고 있듯이 주민들 간에도 확실한 호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이곳에서 아주 오래 살아오신 마을 주민들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호랑이 애기가 등장해 호랑이와 관련된 당집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지난 73년 1월부터 76년 2월까지 지동 동장을 역임한바 있는 이희탁(李熙卓)옹(1925년 1월 30일생)의 증언을 듣는다.

『아주 어렸을때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밤에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 글썽 화등잔만한 시뻘건 불이 보이지 않아? 그게 호랑이 눈이었지. 너무 놀랐는데 부친께서 나오셔서 그걸 보시더니 그쪽으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비시는 거예요. 「신령님, 신령님, 이곳엔 무엇하러 내려 오셨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오셨습니까? 치성을 드릴테니 노여워마시고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야.』

이용은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못골은 지금과 달라서 당시만해도 산림이 우거진 산골과 같았다고 한다. 못골의 동쪽과 북쪽은 광고산 자락이 흘러 내려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지역 고로(古老)들의 말이다.

특히 못골~동수원네거리 산업도로 중간에 있는 고개를 담배고개라고 하는데 이곳 주민 김인환씨에 의하면 옛날엔 이곳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 행인들이 지나가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이런 사실로 미루어 못골은 호랑이와 연관이 깊은 곳으로 생각된다.

호랑이는 우리에게 전래돼 오는 민화(民畵), 민담(民談), 전설(傳說)등을 통해 볼 때 민중들과 무척 친근한 동물이면서도 산중에서, 또는 민가에 내려와 사람과 가

죽을 해치는 무서운 동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호랑이는 「산중의 왕」으로 불렸으며 민간신앙의 대상으로서 산신으로 숭배되기까지 했다.

많은 민화와 민담에 호랑이를 거느린 신선과 산신령을 볼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멸종되고 백두산 밀림지대에서도 간혹 발견되고 있으나 불과 60년전만해도 수원성곽에서 멀지 않은 못골에까지 호랑이가 출몰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낄만 하다.

다시 못골에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로 돌아간다.

이희탁 옹의 부친이 호랑이에게 엎드려 빌자 호랑이는 더 이상 민가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어슬렁 어슬렁 산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호랑이의 출현에 마을 사람들은 밤잠을 설칠수 밖에 없었고 날이 밝자마자 긴급 마을회의가 소집됐다.

마을사람들은 의논끝에 산신령을 달래는 마을 고사를 지낼 것을 결의하고 당집에서 정성껏 제를 올렸다. 그후 호랑이는 내려오지 않았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

후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지난 67년도에 조사된 마을제당 설문지 자료 중 당시 연무초등학교 교사 김춘환씨가 조사한 기록을 보면 「동네에 호랑이가 내려와(민해는 없었음) 주민이 공포에 떨던중 문복(問卜)한 결과 제당을 짓고 산신을 위하면 괜찮다는 말에 동네서 각출, 제당을 짓고 산신을 모심. 그후부턴 없었다는 것이고 3년만쯤 제를 지내는데 제를 안지내고 지나가게 되면 산신(호랑이)이 내려와 그 자리에서 밤에 (눈에)불을 켜고 있다 함」이라고 되어 있다.

또 역시 뒤에 소개하겠지만 같은 시기에 조사된 당시 지동초등학교 교사 김덕성씨의 설문지에 따르면 「60년전(당시)에는 앞뒤 산에 산림이 우거져 밤이면 호랑이가 많이 내려와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불안하게?)했다고 함. 그래서 마을 노인들은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게 당집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함. 그 습관이 오늘까지 전하여 왔는데 지금은 3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초순중 좋은 날을 택해 제사를 지낸다고 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 두가지 자료는 호신당이 헐리기 훨씬 전인 1967년도에 (당시)문교부 소속 문화재 관리국에서 시행한 「전국 부락제당 조사설문」을 수록한 국립민속박물관 발행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1995년)에서 발췌한 것이다.

김춘환씨와 김덕성씨는 동일한 당집일 것으로 생각되는 호신당을 각각 다른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춘환씨는 「당집의 명칭은 산신당(山神堂)으로서 부락 동북간 못골산중턱 서남향」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했으며 김덕성씨는 「당집명이 호신당(虎神堂)으로서 부락 북쪽」에 있다고 하고 있다.

제일(祭日)은 모두 3년에 한번이며 산신당제가 음력 10월1~2일(형편에 따라 택일) 오후6시, 호신당제가 음력10월 초순중 좋은날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관 선출 방법은 연령 제한 없이 복덕을 가려 해당되는 연령, 성명에 마을에서 지명하거나(산신제) 부정없는 40세 이상의 남자를 마을 사람들이 선출한다고 한다.

두 행사 모두 제사전 마을 주민들이 엄격한 근신을 하는 것이 눈에 띈다. 「목욕.금주.금욕은 물론 부정한 것 안보고 접근치 않음.임신.해산한 여자는 불참」(산신당제) 「마을 사람 전체가 근신.외박금지」(호신당제)

제가 끝난뒤엔 마을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모두 나눠먹는 다는 것도 같다. 제수 상차림도 같은데 돼지를 잡고 떡.감주.삼색과실을 장만한다.

이 두 당제가 확연히 틀리다고 기록돼 있는 부분은 신격(神格)과 신목(神木), 당집외형 및 당집 내부이다.

신격은 산신당이 삼신(三神), 호신당이 호신(虎神)이며, 신목은 삼신당이 높이 20m 내외, 1.5m굵기의 괴목(槐木:뽕나무)이 있는 반면 호신당은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다. 당집외형은 산신당이 건평 2평 내외의 초가, 호신당이 기와집 한칸으로 되어 있으며, 당집 내부는 산신당이 아무것도 없이 제상 1개, 제기 10개, 시루 1개가 보관돼 있고, 호신당은 제단과 호랑이 그림, 제기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못골 마을 고로들은 당집이 분명 하나밖에 없었다고 못박고 있다. 당집 모습도 앞에 설명한 것처럼 처음엔 3년마다 짚이엉으로 벽과 지붕을 했으나 40년 전에 시멘트블럭벽돌과 기와를 이용, 새로 지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보고자의 설문지에서 당집 외형이 틀린 것은 여기에서 연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못골의 당집이 이들의 설문지에 나타난 것처럼 두개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할것이다. 아마도 두사람의 보고자중 한사람은 현장 조사 없이 주변사람의 막연한 말만 듣고 기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있다.

못골의 당집이 하나라는 추측은 두곳이 모두 ▲호랑이와 관련됐다는 점 ▲3년에 한번 치러진다는 점 ▲마을에서 동북간으로 1백m 정도 떨어진 못골산 중턱 서남향(산신당), 지동초등학교에서 1.8km 북향 못골 북쪽산 기슭(호신당)에 위치해 있어 비슷한 지점이라는 점 ▲제관선출 방법이 같다는 점 ▲제수상차림 및 제전.후의식이 같다는 점이다.

아무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당집이 존재하고 있을 당시의 기록인데다 오랜 세월이 흐른 탓으로 지금 생존해 있는 원로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진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 김춘환.김덕성씨의 설문조사 자료를 여기에 수록해 본다.

◆김춘환씨(당시 37세, 연무초등학교 교사)의 조사기록 자료(원문에 있는 「부락」이란 표기는 모두 「마을」로 고침)

1.당 이름-산신당(山神堂)

2.당 위치-마을 동북간 못골산 중턱 서남향

3.당 형태-외형:초가, 건평 2평 내외

-당집 내부:내부엔 아무것도 없고 제상 1개, 제기 10개, 시루 1개 보관 돼 있음.

-신목(神木):괴목(槐木) 높이 20m내외 고목, 굵기 1.5m

4.제신(祭神)-신격(神格):없음

-효험.전설:마을수호

5.제관(祭官)-명칭:일명 당주(堂主)

-선출방법:연령제한 없이 삼지복덕을 가려 해당되는 연령 성명에 부락 에서 지명

-기타 참석자:연령 제한없이 마을민 전체

6.제의(祭儀)절차-제전(祭前):목욕, 금욕, 금주, 부정한 것 안보고 접근치 않음. 임신.해산 여인은 불참.

-제의 절차:제당→삼신당

-제후(祭後):음복(飮福), 음식 나눠먹기(마을 호당 전체)

7.제일(祭日)일시-음력 10월 1~2일(그때 그때 택일)오후 정각 6시

8.제수(祭需)상차림-떡, 감주, 돼지 잡고, 삼색과실

9.제비(祭費)-각 호당 각출, 경비 2만원 정도(당시)

- 10.기타 특기 사항 -위치:마을에서 1백m 정도 떨어진
 -호수:1백호
 -역사:약 70년 정도 됨
 -경비:1년에 1회씩 회의를 가짐. 현재 쌀 20가마 있음(당시).

※부대 기입란

- 지금부터 약 10년전(?) 동네에 호랑이가 내려와(민해는 없었음) 마을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중 문복(問卜)한 결과 제당을 짓고 산신을 위하면 괜찮다는 말에 동네서 각출, 제당을 짓고 산신을 모심. 그후부터는 없었다는 전설이고 3년 만큼 제를 지내는데 지내는 날이 되어도 지내지 않고 (그냥)지나면 지금도 산신(호랑이)이 내려와 그 자리에서 밤에 (눈에)불을 켜고있다 함.
- 이 제당은 천주교.불교.신교 등 할 것없이 마을민은 다같이 위한다고 함.
- 괴목은 아무런 전설이 없으나 다치지 못한다고 한다. 다치면 탈(몸이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생긴다)이 난다고 함.
- 제후 3일 이내에 부부 동침하여 낳은 아기는 불구아를 낳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모님들은 젊은 부부들에게 주의를 많이 주고 있다.

※그림

산신당



지붕은 원추로 되고
 방은 정4각형임

◆김덕성씨(당시 48세, 지동초등학교 교사)의 조사기록 자료(원문의 「부락」은 모두 「마을」로 표기)

1.당이름-호신당(虎神堂)

2.당 위치-마을 북쪽

3.당형태-당집외형:기와집 1칸

-당집 내부:제단, 호랑이 그림, 제기

4.祭神-신격:호신(虎神)

5.제관-명칭:제주(祭主)

-선출 방법:부정 없는 40세 이상의 남자를 마을민이 선출함

-기타 참여자:부정이 없는 30세 이상의 남자중 희망자 전원

6.제의절차-제전(祭前):마을민 전체가 근신. 외박금지

-제의 절차:제물을 차려 놓고 절을 함

-제후(祭後):마을민 전체가 회식 함.

7.제일(祭日) 시간-3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초순중 좋은 날을 택함.

8.제수(祭需) 상차림-떡.술.돼지고기.삼색의 과일

9.제비(祭費)-마을 자체 자금

※부대 기입란

-못골 마을은 전후(前後)로 산등이 남북으로 길게 뻗혀 있는 가운데에 자리잡은 동네임.60년전 (1967년 당시)에는 앞뒤 산에 산림이 우거져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와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불안하게) 했었다 함. 그래서 마을 노인들이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게 당집을 거둬놓고(지어놓고) 제사를 지냈다 함. 그 습관이 오늘까지 전해져 왔는데 지금은 3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초순중 좋은 날을 택해 제사를 지낸다고 함.

※그림

호신당



② 못골 호신당제 개요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못골 호신당제의 유래와 김춘환, 김덕성 교사가 1967년에 조사한 설문지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필자는 여러차례에 걸쳐 못골 지역을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집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그러므로 1967년에 두 교사가 조사한 「산신당」과 「호신당」은 한 당집을 두고 부르는 다른 이름이었거나 아니면 조사자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다.

1. 제당(祭堂)

필자가 조사한 호신당은 전기한대로 못골산(지난 70년대말과 80년대초 택지 개발 및 산업도로 개설로 없어짐), 현재는 농협이 들어 있는 신축 빌딩이 세워진 자리에 있었다.

당집의 이름은 「호신당」 「당집」 「산신당」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유래는 앞에서 기록한 것처럼 확실한 내용을 아는 이가 없이 그저 지금으로부터 1백여년전쯤으로 추측하고 있다.

호신당은 그러나 82~3년경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경수산업도로 개설시 헐려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그 자리에는 빌딩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호신당이 있던 터를 매각한 자금으로 지난 85년 못골에 못골새마을회관을 건립해 1층은 식당, 2층은 학원으로 세를 주고 있으며 3층은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 수익금은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당집은 5~6평 규모로서 처음엔 초가였다고 한다. 지붕과 벽을 모두 짚이엉으로 엮은 다소 허술한 것으로서 3년에 한번 제를 올리기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작업은 마을사람 모두가 공동으로 했다.

이엉을 엮고 당집을 지을때 술과 음식, 그리고 흥겨운 농악이 있는 축제분위기였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쯤 호신당은 세멘블럭과 기와를 사용해 지은 반영구적인 당집으로 바뀌게 된다. 그 이유는 짚으로 만든 당집이 보기에 초라할뿐 아니라 3년마다 이엉을 엮고 당집을 만드는 일이 번잡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집 내부엔 아무것도 없고 다만 큰 시루 2개, 제기만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지금 생존해 있는 노인들의 기억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호랑이 그림 등 다른 것이 있었는지는 일수 없다. 이는 위에서 김덕성씨가 조사한 자료에 호랑이 그림이 모셔져 있다고 한것으로 미루어

더욱 그렇다.

또 두 자료 모두 호랑이의 출몰로 인해 당집이 생기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호랑이와의 연관성은 아주 깊어진다.

이 자료는 조사시기가 1967년 이므로 지금으로부터 약30년전의 것이 된다.당시엔 당집이 존재해 있었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두 자료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은 주목해 볼만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생존해 있는 몇몇 노인들이 알지 못했거나 기억속에서 사라졌던 부분을 보완해주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ㄴ.제의 절차

못골 호신당제는 마을의 번성과 풍농을 기원하고 질병과 흉사가 깃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낸다. 또 호랑이의 출몰을 산신령의 노하심으로 보고 산신령을 받들어 모시기 위함에서다.

당제는 3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상달 중 좋은 날을 잡아 지낸다.

신격은 산신(山神)과 우리 고유 신앙인 삼신(三神)을 모두 모시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제주(祭主)를 선발한다.

제주는 마을 사람 가운데 복덕(福德)을 가려 지명되는데 가족중 젊은 여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젊은 여인은 생리를 하기 때문이며 성생활을 참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 제의 기간중 성행위와 생리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 민속의 단면을 여기서도 엿볼수있다.

따라서 대개 젊은 여인이 없는 노인층이 사는 집에서 선발되곤 했다.

제주로 지명된 사람은 그날부터 정결한 생활을 하게 된다.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가하면 부부생활을 중단하고 일체의 부정한 것에 접근치 않는다. 부정한 생각 조차도 금물이다. 또 제를 지내기 1주일부터 집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고 근신한다.

집 주변에는 금줄이 쳐진다.

이때는 제주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도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외부 출타를 자제하는등 마을 전체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당제를 지내는 날을 기다린다.

제사 음식은 제주로 선발된 집에서 마련하며 마을 공동기금을 보탠다.

이때 준비하는 음식은 돼지를 잡고 떡,술(막걸리),삼색과일등이다.

제사 내용은 일반 당제와 같다.(뒤에 소개)

당제가 끝난뒤엔 당제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대동계 회원) 이름을 적은 한지를 태워 올리면서(燒紙) 복덕을 기원한다.

또 음복을 하고 제사때 준비한 돼지고기, 떡 등을 마을 주민전체가 나눈다.

3.연희 과정 및 뒤풀이

현재 제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개 경기도 지방의 당제는 지역에 따라 별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당제나 산신제의 제의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민속행사 또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축제라는 뜻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와 함께 제사 전후에 농악등 놀이마당을 가미한 형태로 재현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못골마을엔 1백여년전부터 마을 두레패가 조직돼 있어 농사철, 추석이나 설날, 정월대보름날등에 흥겨운 연희를 펼쳐온바 있다.

지금은 연희자들의 고령화, 계승자의 단절등으로 놀이마당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나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시 두레패를 조직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사자가 이 호신당제 발굴을 위해 못골

을 방문하는 동안 만난 주민들 중 두레패의 재건을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것은 쟁가리,징,북,장구,호적,피리,상모,깃대등 15명이 할수 있는 농악기 및 두레패 도구등이 그대로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못골 호신당제를 주관했던 대동계가 현재도 명맥을 이어오면서 상호간의 경.조사는 물론 마을일에 앞장을 서오고 있다는 것도 당제 재현 및 두레패 재건에 희망적인 요소라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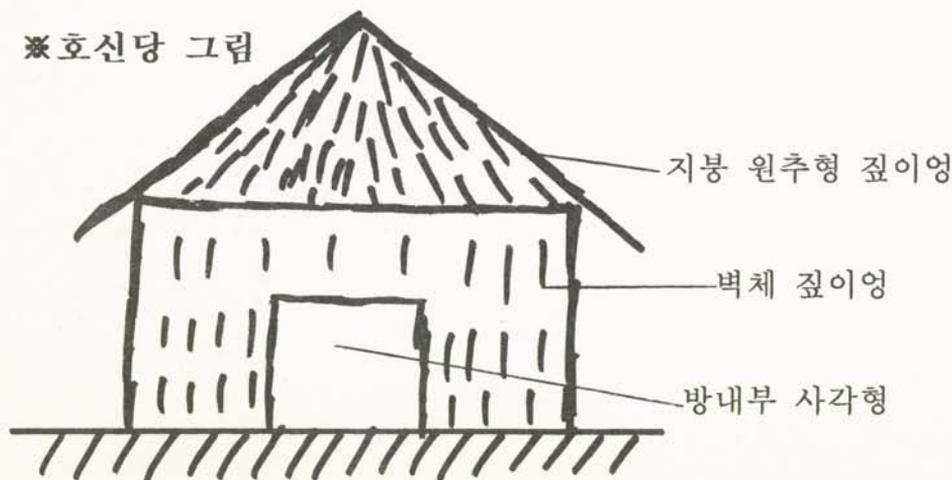
대동계는 현재 우만동에 거주하는 진흥상(陳興祥)씨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기한 것처럼 호신당이 있던 터를 매각한 돈으로 못골 새마을회관을 건립, 운영.관리하고 있다.

당제의 재현은 예전처럼 그냥 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축제형식을 띠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만 치르면 몇몇 사람들의 행사로 국한될 것이며 전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축제마당의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호신당제 구성은 종전의 제의를 따르되 연회적인 형식을 덧붙인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두레패가 나와 흥겨운 풍물을 시작한다. 이는 추수가 끝나고 결실의 풍요속에서 주민들이 축제를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 ②낮의 흥겨운 놀이판이 끝나고 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평안한 잠에 빠져든다.
- ③정적속에서 호랑이가 출현. 놀라서 어쩔줄 모르는 마을 사람들, 갈팡질팡하다가 마을 회의를 소집한다.
- ④무당 등장. 푸닥거리를 하고 점을 친다. 점괘는 호랑이(산신)을 모시기 위한 당집을 지으라는 것이다.
- ⑤당집을 짓는 마을 사람들. 당집이 지어지고 그안에 제단.시루.제기와 함께 호랑이 그림이 모셔진다.
- ⑥제물을 차려놓고 당제를 올리는 마을 사람들.
- ⑦당제가 끝나고 소지(燒紙)를 한뒤 음복을 하며, 남은 음식을 나누는 모습.
- ⑧농악이 펼쳐지며 흥겨운 뒤편이가 진행된다.

※호신당 그림



4. 못골 호신당제의 특징

수원 못골의 호신당은 경기도에서 이곳에만 있는 특이한 마을제당이다.

지난 1967년도 당시 문교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설문조사한뒤 회수된 질문지를 토대로 발행한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1995년,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모두 4백54개의 마을당이 수록돼 있는데 산신당, 산제당, 군웅당, 도당, 삼신당, 상당, 서낭당, 하당, 신당, 당, 금성당, 용당, 영산당, 여왕당 등의 이름은 눈에 띄지만 호신당이라는 명칭은 못골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신당은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호랑이와 연관된 전설도 더러 눈에 띄지만 호랑이를 모시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호신당의 경우는 호랑이만을 모시지 않고 전래의 숭배 대상인 삼신을 함께 모시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의 흐름 때문인지 마을사람 각자의 말이 약간씩 다르다.

한편 제를 지내는 주기도 타 마을제에 비해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마을제는 보통 1년에 한번씩이지만 못골 호신당제는 3년에 한번씩 지냈다.

현재 이의동의 길마제줄다리기도 3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에게 탐문한바 특별한 사유를 아는 이는 없었다.